

[로스쿨 소식]

10대 로펌 신입 표준모델, SKY·상경계·29세 남성

- SKY 학부·로스쿨 출신, 상경계열 전공한 29.3세 남성 -



법률신문이 2021년 우리나라 10대 대형로펌의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밝혀진 올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표준모델이다.

법률신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, 태평양, 세종, 율촌, 화우, 바른 지평, 대륙아주, 동인 등 국내 10대 로펌이 올해 채용한 신입변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. 이 가운

데 성별, 나이, 출신 로스쿨, 출신 학부, 전공 등 주요 특성을 분석해 2021년 대형로펌 입사자의 현황을 들여다봤다.

1. 총 232명 입사, 남성이 147명으로 63.4% 차지

조사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무관 출신 등 신입으로 입사한 경우를 대상으로

진행했다. 법원 재판연구원(로클럭) 임기를 마치고 대형로펌에 입사 예정인 신입변호사는 신입이 아니라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이 많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.

올해 10대 대형로펌에는 총 232명의 신입 변호사들이 입사했다. 남성이 147명(63.4%), 여성이 85명(36.6%)이다.

2. 연령대 25세 ~ 42세까지, 20대 143명, 40대 2명

신입변호사들 평균 나이는 만 29.3세로 나타났다. 전체 연령대는 25세부터 42세까지 넓게 포진됐지만, 20대가 143명(61.6%)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 30대는 87명(37.5%), 40대는 2명(0.9%)이다.

올해는 5명의 사법시험 출신을 제외하고 227명(97.8%)이 로스쿨 출신으로 나타났다. 변호사 채용시장에서도 로스쿨 체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.

신입변호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, 서울대와 고려대, 연세대가 175명(77.1%)으로 다수를 차지해 ‘SKY 쏠림 현상’이 여전한 것

으로 나타났다.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92명(40.5%)으로 가장 많고,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46명(20.3%), 연세대 로스쿨 출신은 37명(16.3%)이다.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 19명(8.4%), 한양대 로스쿨 7명(3.1%) 순이다.

3. 서울대·고대·연대 출신 175명, ‘SKY 쏠림’ 여전

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SKY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하다. 전체 232명 중 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 출신이 189명(81.5%)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. 서울대가 110명(47.4%), 고려대가 43명(18.5%), 연세대가 36명(15.5%)이다. 이어 성균관대 10명(4.3%), 경찰대 8명(3.4%) 순이다.

전공별로 살펴보면 경영학, 경제학 등 상경계열 출신이 총 104명(43%)으로 가장 많았다.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대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 경영학 전공자가 56명(23.1%), 경제학 전공자가 46명(19%), 법학 전공자가 26명(10.7%)이다.

(출처/법률신문)